

“우리 딸 어떡해...못 보내” 눈물 속 발인·마지막 등교

‘묻지마 살인’에 숨진 여고생 영면

장례식장 운구부터 유가족들 오열
학교 찾아 교정 순회...곳곳서 탄식
엄마·아빠 “많이 기억해주길” 읊소

“우리 딸 학교 가야지.....왜 누워있어.....”
7일 오전 8시께 광주 광산구 한 장례식장에선 지난 5일 심야 시간대 ‘묻지마 살인’으로 숨진 A양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장례식장을 떠나기 전 유가족들과 지인들은 영정을 향해 묵념하며 A양이 평온하길 소원했다.

영정 앞에 선 A양의 어머니는 다시 한 번 오열했다. 그가 단장지에(斷腸之哀)의 아픔을 토해 내자 함께 있던 다른 유가족들과 지인들도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다.

비값으로 나와 A양이 잠든 관을 운구차로 옮길 무렵부터 유가족들은 너도나도 비통함을 드러냈다.

한 유가족은 “어떻게 보내냐”라며 답답한 듯 가슴을 두드렸고, 또 다른 이는 관 위에 놓아야 할 흰 국화꽃을 좀처럼 두지 못한 채 한참을 서서 울먹였다.



7일 오전 8시께 광주 광산구 한 장례식장에서 일면식도 없던 20대에게 살해당한 A양의 발인이 엄수됐다. A양의 어머니가 떠나가는 관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우리 딸 못 보내”고 재차 오열하자 주변의 유가족들이 그를 붙잡은 채 함께 울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형우 기자

국화꽃이 놓인 후 A양의 남동생이 영정사진을 들고 행렬 맨 앞에 서자 유가족들과 지인들도 관을 옮겼다.

이들이 운구차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A양의 어머니가 떠나

가는 관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우리 딸 못 보내”고 재차 오열하자 주변의 유가족들은 그를 붙잡은 채 눈물과 깊은 탄식을 토해냈다.

장례식장을 떠난 운구차는 오전 8시30분께 광산구 한 고등학교 앞에 멈춰섰다. A양이 응급구조사

로서 꿈을 키우고 피우내기 위해 달려왔던 이곳을 둘러보며 유가족들은 또한 번 무너졌다.

장례 행렬의 맨 앞에 선 A양의 남동생은 감정이 북받친 듯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누나가 조금이라도 더 학교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영

정을 들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운동장과 교사(校舍) 앞을 지나는 동안 유가족들의 울음은 끊이지 않았고, 몇몇 교사와 A양의 친구들은 행렬에 함께했다.

이들이 A양의 마지막 등교에 함께하는 동안 학교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A양의 어머니는 연신 “우리 딸 어떡해”를 되뇌며 몸을 가누지 못했고, 아버지는 “여기가 학교야, 우리 딸 학교 가야지”라며 눈물을 쏟았다.

교정을 한 바퀴 돌고 나서 학교를 떠나기 전 A양의 부모는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로 “많이 기억해주세요. 우리 딸 많이 기억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부모의 간절한 외침에 A양의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영락공원으로 향하는 운구차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한편 A양은 지난 5일 심야 시간대에 귀가하던 중 일면식도 없는 20대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파이는 경찰 조사 과정에 서 ‘삶에 재미가 없어’ 홀로생을 마감하려다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해 공분을 사고 있다. /서형우·윤찬용 기자



‘묻지마 살인’ 2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영장심사 전 “계획 안 했다” 주장
‘총동 범죄’ 대비 증거 인멸 정황
오늘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가 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24·사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 등이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전 12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B(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고등학생 C(17)군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구속되기 전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다.



‘왜 여학생을 공격했느냐’는 물음에는 “여학생인 것을 알고 살해한 것은 아니다. 계획 안 했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A씨는 ‘삶에 재미가 없어’ 홀로 생을 마감하려다 범행을 결심했다며 총동적인 범죄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왔다.

실제 B양과 접점도 없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행, 이른바 ‘묻지마 범죄’라는 데 무게가 실려왔다.

하지만 우발적 범죄로만 여기기엔 A씨의 행

적 ‘계획적’인 면이 있어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검거되기까지 약 11시간의 공백 동안 스마트폰과 흉기를 버리고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스마트폰과 흉기의 경우 검거 당시 1개씩 확보됐지만, 이것들은 이번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은 낮은 것들이었다.

흉기는 포장조차 뜯기지 않은 새 것이었고 A씨가 주로 사용했던 스마트폰은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혈흔이 묻은 흉기는 앞서 발견됐지만, A씨가 도주 과정에서 강가에 버린 스마트폰 확보는 아직이라 경찰은 수색을 계속하는 한편 다각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와 수사 관서의장이 결정을 내린 후에는 당사자에게 의사를 묻는데, 동의하지 않더라도 5일간의 유예 기간 후 신상 정보는 공개된다. /안재영 기자

‘사적 제재’ 음주운전 추격 유튜버 법정구속

법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음주운전 헌터’로 활동하며 의심 차량을 추격하던 중 다른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 연루된 유튜버가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1명은 벌금 100만~200만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쫓으며 추격 대상에게 위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적 제재로 물의를 일으킨 A씨의 범행에 나머지 11명은 한 차례씩 가담했다. 이 중 5명은 2024년 9월 A씨 등을 피하려다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진 운전자의 사고에서 추격에 함께했던 이들이다.

사망 사고에 연루된 피고인들은 뒤늦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범행을 함께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추격에 함께한 경위에 비추면 때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양형 이유로 “동종 범죄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망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순천서 타인 車 불지른 50대 검거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고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방화 등 혐의로 A(50대)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5분께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았다.

불은 화재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오전 3시45분께 완진됐다.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특정, 화재 현장 인근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유리창을 들러 깨트린 뒤 불이 붙은 종이 상자를 차량 내부에 던졌으며, 피해 차량의 차주와는 접점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양홍렬 기자



대리점 완전독점 대동강맥주 공급업체 공고 모집

이미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아시아 최고의 라거!!!
국내 최초 (북한)대동강 맥주가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엽니다!

- 대동강 유역의 맑은 물과 엄선된 보리로 완성된 깊은 풍미
- 마케팅 없이도 고객이 먼저 찾는 이름
- 지역별 한정 대리점 모집을 통한 독점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
- 불황에도 대동강 맥주는 출시전부터 예약문의가 폭주하는 검증된 아이템입니다

모집대상 주류유통 유경험자 및 신규 사업 희망자(주류 면허 없어도 됨)

지원내용 영업권역보장 홍보물지원, 광고지원

특 전 초기 계약 시 계약금 최소화

성공은 타이밍입니다! 대동강 맥주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각 시·군 선착순 모집★
문의 | 자연과 생명 연구소 080-374-5046